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저이용 공공건물, 시민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	사회·복지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한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문화·관광	'시민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추진	도시교통	공공안전을 위해 전동 스쿠터 이용규제안 마련
산업·경제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 '이노베이션 인재 육성' 지원 신규 업체의 설립·성장 지원 등 식품산업에 적극 투자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이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저이용 공공건물, 시민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

미국 시카고시 / 문화·관광

미국 시카고시는 저이용 공공건물을 시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장려. 특히 방치되어온 공공건물 및 공간을 재개발하지 않고 농산물직판장, 청소년 문화예술센터, 시민 콘서트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배경

- 시카고시는 건축과 예술로 유명한 도시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종, 소득 및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장려
 - 대부분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원 등은 시가 속한 일리노이주 주민증으로 무료입장 가능
 -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시 예산으로 무료입장 및 행사 진행
 - 저소득층 청소년들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항상 무료입장이 가능한 시립 미술관, 박물관이 대다수
 - 사립 미술관, 박물관 역시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할인혜택 및 무료 프로그램 제공
 - 시카고는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한 도시로, 시는 문화예술 향유, 교육의 평등을 위해 노력
 - 리버데일, 잉글우드, 웨스트 잉글우드 등의 지역은 30%가 넘는 실업률 기록. 그러나 시카고 전체 실업률은 한자릿수로 양극화가 뚜렷

주요 내용

- 시는 주민과 저소득층 등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이용 공공건물 및 공간을 활용
 - 오래된 건축물의 역사적인 의미를 보존함과 동시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운 재개발 대신 시민단체들과 협업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
 - 흑인밀집지역이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드론 지역의 문화센터 Experimental Station은 저이용 공공건물과 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곳
 - 주말에는 해당 건물 외곽의 저이용 공공공간에서 저소득층이 저렴하고 영양가 높

- 은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직판장 운영
- 또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워크숍 외에도 지역사회 자전거 수리 가게 Blackstone Bicycle Works를 추진, 8~18세 청소년이 무료로 기술 실습과 교육 참여 가능
- 저이용 공공건물 및 공간을 활용해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결속력을 높이며, 경제적 이익 증진을 추구
- 지역 주민들의 활용을 통해 저이용 공공건물 및 공간의 유지 보수도 용이
- 시는 지역 내 예술가, 단체에 저이용 공공건물 및 공간을 대여해 특정 지역의 이미지와 랜드마크 창출
 - 문화예술로 잘 알려진 다운타운 외곽 지역 로건 스퀘어(Logan Square)는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젊은 세대의 호응이 높음
 - 해당 지역은 과거 남미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던 위험 지역이었으나 저이용 공공건물 및 공간을 예술가들에게 적극 대여한 결과, 예술가들이 집적해 활동함으로써 인기 지역으로 탈바꿈
 - 로건 스퀘어 내 저이용 공공건물 콤포트 스테이션(Comfort Station)은 1920년 시카고공원위원회에서 지은 건축물로, 현재 예술공동체에 대여해 무료 전시회, 영화 상영, 워크숍, 단체 행사, 토크쇼, 콘서트 등을 진행
 - 지역 예술가들은 저이용 공공건물 및 공간에서 안정적인 작품 제작과 발표 등이 가능
 -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생활이 가능하며, 예술가들은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둠
 - 저이용 공공건물과 공간 활용을 통해 지역 내 슬럼화를 해결하고, 기존 주민들이 운영하던 가게 매출이 증대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

향후 계획

- 시는 저이용 공공건물 및 공간을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 협업해 문화예술공간으로 적극 활용 계획
 - 다양한 비영리단체들은 저이용 공공건물 및 공간을 목적에 맞는 용도로 활용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과 사회 안전망으로서 활동을 수행
 -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
 - 시는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 저이용 공유지 활용과 동시에 사회복지 기능도 확장
 - 저이용 건물 및 공간 활용에는 도서관, 경찰서와 같은 관공서도 포함. 주말 등을 이용해 워크숍과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다방면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노력

- 시는 저이용 공공건물과 공간을 영리단체에도 대여해 문화예술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
 - 영리단체들이 저이용 공공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시는 세수 확보를 통해 운영관리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들은 무료 또는 저렴하게 문화예술을 체험
 - 로저스 파크의 저이용 공공건물에 위치한 리사이클러리(Recyclery)에서는 수리한 자전거와 조립 자전거를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 창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전거 수리 및 정비 강좌 등도 제공
 - 해당 단체 외에도 목적에 부합하는 영리단체에 저이용 공공건물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그림 1] 로건 스퀘어 '컴포트 스테이션' 전경

<https://comfortstationlogansquare.org/>

<https://experimentalstation.org/>

<https://www.therecyclery.org/>

<https://www.volunteermatch.org/>

<https://logansquarist.com/2018/09/volunteer/>

<https://cpsapples2apples.com/2018/01/24/space-utilization-then-2015-and-now-2018/>

강기향 통신원, gihyangkang@gmail.com

‘시민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추진

일본 교토市 / 문화·관광

일본 교토市는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 등으로 일부 관광지나 버스 혼잡, 관광객의 부적절한 행동 등 관광객 매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시행

배경

- 교토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 등으로 일부 관광지나 버스 혼잡, 관광객의 부적절한 행동 등 관광객 매너 문제가 발생
 - 이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 5월 ‘시민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市民生活と調和した持続可能な観光都市) 추진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정책 검토를 추진
 - 관광지나 대중교통의 혼잡 문제는 관광객의 만족도 저하와 함께 시민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특히 ① 위법민박 대책·숙박시설의 질 향상, ② 관광지 혼잡 대책, ③ 버스 혼잡 대책, ④ 관광객 매너 대책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
 - 시는 7월에 ①과 관련한 대책으로 ‘지역협동·공헌형 숙박시설 촉진제도’(地域協働・貢献型宿泊施設促進制度)¹⁾를 도입해 질 높은 숙박시설 확대에 힘씀
 - 시는 최근 지역 단체나 민간사업자와 연계해 위의 ②~④와 관련한 새로운 대책을 시행

주요 대책

- 관광지 혼잡 대책
 -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날씨, 요일, 시간 등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층학습을 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 전역 및 지역별 관광 쾌적도를 예측하고, 교토 관광 홈페이지에 5단계로 표시하는 등 관광 쾌적도 가시화를 통해 관광객 분산 추진

1) 이 제도는 지역단체 등과 숙박시설이 협동해 실시하는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의 광고경비 등 지원,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에 공헌하는 교토다운 숙박시설 표창, 지역의 협동이나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를 교토시 정보관 등에서 홍보함으로써 지역과의 협동·지역공헌에 기여하는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것임

- 이용자 대상 가시화 기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표시되는 관광 쾌적도와 체감도 사이의 괴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예측의 정확도를 높임
- 아울러 여유 있게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나 추천 관광 경로를 표시함으로써 쾌적하게 관광할 수 있는 시기·시간대 방문을 유도하거나, 주변 지역 방문을 유도해 특정 관광지의 혼잡 완화를 도모
 - 관광 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
- ‘지하철 이용 촉진’이라는 관점에서의 버스 혼잡 대책
 -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JR의 1~4일용 프리 승차권 ‘간사이 지역 패스’(関西エリアパス)에 지하철이나 전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추가
 - 관광지를 버스로 이동하는 방일 외국인을 지하철이나 전철로 유도해 버스의 혼잡 완화를 도모
 - 방일 외국인 입장에서도 시내 중심부의 혼잡을 피해 보다 여유롭게 관광을 즐길 수 있음
 - 새로운 승차권 정보 외에 지하철이나 전철을 이용한 관광 코스 정보 등을 교토시 해외정보발신·수집거점(세계 14개 도시)이나 외국인 관광객용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 관광객 매너 대책
 - 관광객에게 교토 주민들의 생활방식이나 매너를 알리기 위해 여행업계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일본어·영어·중국어 등으로 매너 계몽 스티커나 동영상 제작해 배포·방영
 - 매너 계몽 스티커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촬영 금지,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흡연 금지 등 10여 가지 내용을 소개. 교토시관광협회 회원을 비롯해 숙박시설, 음식점, 토산품점, 문화·관광시설 등에서 배포
 - 계몽 동영상은 계몽 내용을 담아 공항, 관광시설, 외국인 관광객용 사이트, 교토 관광 사이트 등에서 방영
- 시는 이들 대책의 성과나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효과적인 혼잡 대책이나 매너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

<https://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57933.html>

<https://www.city.kyoto.lg.jp/sankan/cmsfiles/contents/0000257/257933/besshi1.pdf>

<https://www.city.kyoto.lg.jp/sankan/cmsfiles/contents/0000257/257933/besshi2.pdf>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 ‘이노베이션 인재 육성’ 지원

일본 오사카시 / 산업·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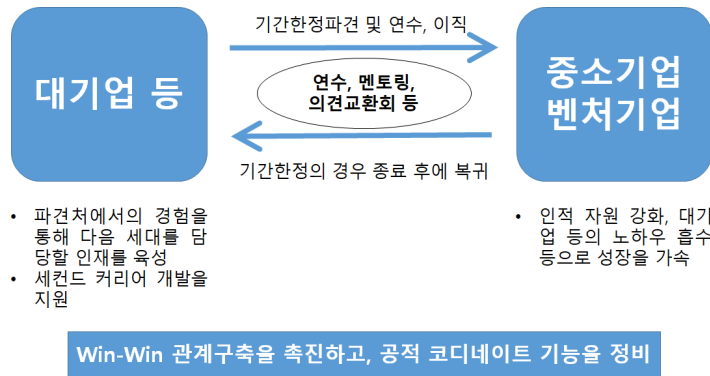
일본 오사카시는 제4차 산업혁명 등을 배경으로 부가가치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책임질 차세대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노베이션 인재 육성·유동화 촉진 사업’을 시행

배경

- 제4차 산업혁명 등을 배경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부가가치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견인하는 인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런데 저출산·고령화나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로 국가 차원의 인재 부족이 심화. 특히 중소·벤처기업 등의 인재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음
 - 인재 부족은 시장개척이나 새로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수요 증대에 대처하기 어렵게 해 기회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기업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이에 오사카시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적 자원 강화를 위한 지원이나 대기업 등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의 인재 유동화를 촉진하는 ‘이노베이션 인재 육성·유동화 촉진 사업’(イノベーション人材の育成・流動化促進事業)을 시행
 - 이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견인하는 차세대 인재 육성이나 성장 도상 단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을 도모하고, 오사카의 이노베이션 창출환경 정비·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인재 유동화 방법으로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 기간 한정 연수파견, 이직, 겸업·부업 등을 상정

주요 내용

- 대기업 등의 인재를 성장 도상 단계의 중소·벤처기업 등과 매칭해 인재 유동화를 촉진
 - 대기업 등에 소속된 인재의 연수파견이나 이직 대상으로 특정 중소·벤처기업 추천, 겸업·부업 인재와의 매칭 기회 제공, 벤처기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 인재와의 교류 이벤트 실시 등



[그림 1] 이노베이션 인재 육성·유동화 촉진 사업의 개요

- 대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 이노베이션 창출을 견인할 차세대 인재를 육성
 -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대기업 등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재를 수용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인건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음
- 중소·벤처기업의 인적 자원 강화, 노하우 습득 등으로 기업 성장을 가속
- 점업·부업을 비롯해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보급·정착을 촉진
- 사업 추진 주체는 인재를 원하는 벤처기업과의 매칭, 경험할 수 있는 업무 내용 등의 조정, 정기적인 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연수파견에 도전하는 인재의 배움의 장을 넓히고, 획득한 경험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 정리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

기대효과

- 대기업 인재의 노하우 등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대기업의 인재는 ① 기존 조직으로 돌아가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마음이 집이나 사고방식 체득, ② 신규 사업 착수 등 곤란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의지력 향상, ③ 벤처기업이 아니고는 경험하기 어려운 다중 작업이나 속도감 체험, ④ 대기업이라는 기업 브랜드가 없는 가운데 스스로의 힘을 시험해 볼 기회 획득 등이 기대

<https://www.city.osaka.lg.jp/keizaisenryaku/page/0000484814.html>

<https://www.sansokan.jp/innv-jinzai/>

<https://www.sansokan.jp/innv-jinzai/enterprise/>

신규 업체의 설립·성장 지원 등 식품산업에 적극 투자

캐나다 앨버타주 / 산업·경제

식품업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두 번째로 큰 제조업종으로, 약 1억 2,5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액, 약 25,500명의 고용자 수를 기록. 주정부는 인큐베이터 형태의 기반시설과 식품가공 개발센터 등 신규 벤처회사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확장할 계획

배경

- 캐나다 에드먼턴市 남부에 위치한 위성도시인 레둡(Leduc)은 신생 업체가 식품 생산을 연구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형태의 기반시설인 APBI(Agrivalue Processing Business Incubator)를 2007년 7,000제곱미터 규모로 설립·운영
- 인큐베이터 인근에 설치된 식품가공개발센터(FPDC, Food Processing Development Center)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공장으로, 시제품의 생산 및 제품 개발 실험시설을 제공해 신규 업체가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 앨버타 주정부는 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19년 6월 예산 1천만 달러를 투입해 식품사업 인큐베이터 규모를 늘리는 것을 승인하고 앨버타의 농업 가공 산업을 증진시킬 계획을 세움

주요 내용

- APBI의 기반시설 및 서비스
 - 신규 사업에 대한 APBI의 제공 서비스
 - 새로운 식품사업 착수 지원 및 신제품/프로세스 개발 지원
 - 기존 식품기업의 제품/공정 개발 인프라의 앨버타주 유치
 - 기업이 시장입지를 구축하고, 생산기술을 개발 및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시설 제공
 - 다른 기업체와 경험, 서비스 및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제품의 개선, 테스트 및 제조에 도움을 줌
- APBI의 입주업체 선발 기준과 관리 주체
 - APBI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의 순수 지원 사업이므로, 식품가공 관련

벤처기업의 사업 성장 가능성에 따라 입주가 결정

- 평가는 사업계획의 강점과 앨버타 농림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함
- 인큐베이터는 앨버타주 농업 및 임업부의 식품 및 바이오 가공팀에서 관리 및 운영

○ APBI 입주자격 조건

- 신규 또는 확장 사업이어야 함
- 비즈니스 및 마케팅 계획이 있어야 함
- 캐나다 연방 식품검역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최초 생산 개시 전 HACCP¹⁾ 계획이 있어야 함
- 임대료, 임금, 간접비 등을 지불할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함
- 임대계약 종료 시 인큐베이터 종료계획이 있어야 함
- 경영역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인큐베이션 서비스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함

○ APBI의 임대조건

- 인큐베이터 임대기간은 대체로 18~36개월
- 인큐베이션 기간 동안 고객 회사는 인큐베이터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금융 및 마케팅 지원을 이용할 수 있음
- 보유 장비는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인큐베이터 시설에서 철거해야 하고, 입주 시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함
- 임대료는 임대공간의 크기와 임대기간에 따라 달라짐
 - 490㎡ 면적의 경우 1~2년차는 \$117,600, 3년차는 \$137,200이며, 연간고정비는 \$30,000임

○ 식품가공개발센터

- 인큐베이터 인근에 설치된 기관으로, 앨버타 식품가공업체의 역량을 강화해 시장에서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설계
- 또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중간 처리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개요
 - 시설 내 소수의 패널과 75명의 소비자 패널을 활용하여 품질 보증, 유효기간 등을 측정하는 평가 시행
 - 상담 서비스
 - 실험실, 테스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개발 중인 제품의 상업화 또는 테스트를 위해 내부 시설을 활용하게 함
 - 개발 기간 이후 자체 시설의 보완 기간에 시범 플랜트를 사용하게 함
- 성공적인 보육 졸업 업체 배출
-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11개 회사 중 8개가 운영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설립
 - 예를 들어 식품회사 시윈(Siwin Foods Ltd)은 인큐베이터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회사로, 현재 49명의 직원이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 만두 등을 만들어 판매



[그림 1] 인큐베이터 외부 전경

출처: <https://www.edmonton.com/articles/siwin-foods>

<https://edmontonjournal.com/business/local-business/province-plans-10-million-expansion-of-edmonton-area-food-processing-incubator>

<https://www.alberta.ca/agrivalue-processing-business-incubator.aspx>

<https://www.edmonton.com/articles/siwin-foods>

<https://www.alberta.ca/food-processing-development-centre.aspx#toc-0>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한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인도 델리NCT / 사회·복지

인도 델리NCT 정부는 도로 위 사건사고 목격자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의 병원 이송에 도움을 주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금전적으로 포상하고 ‘사마리아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 시행. 이를 위해 차량공유서비스업체와 협약을 맺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

배경

- 사건사고를 목격했지만 신고에 따른 행정적 불편함, 무관심 등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병원 이송의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 사건사고 피해자가 골든아워에 해당하는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경우 생존 가능성이 7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와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필요
 - 특히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목격한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

주요 내용

- 델리NCT 정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을 대상으로 2,000루피(약 33,000원)를 포상하고, ‘착한 사마리아인 증명서’를 수여하는 제도를 2019년 10월부터 시행
 - 사건사고 관련 목격자 진술에 대한 의무도 면제해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 그런데 도움을 준 시민들 상당수가 실제로는 금전적 포상을 사양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2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약 3,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이 제도의 영향으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역 내 차량공유서비스 제공업체인 우버(Uber)와 올라(Ola)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
 - 공유서비스 업체는 델리NCT 정부의 자문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환자이송 대응 매

뉴얼을 만들어 소속 운전기사에게 배포

정책 평가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건사고 피해자에게 빠른 구호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진료서비스의 적시 제공 등 긍정적 효과 예상
 - 특히 도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의 운전기사들 역시 환자 구호조치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 효율의 극대화가 예상
- 구호조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구호활동 확산에 긍정적 기여
 - 일부 국가의 경우 타인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그림 1] '착한 사마리아인 증명서' 수여식



[그림 2] 환자구호조치 홍보 포스터

<https://www.delhicapital.com/delhi-news/farishte-dilli-ke.html>

<https://www.financialexpress.com/india-news/arvind-kejriwal-launches-farishte-dilli-ke-initiative-asks-deli-citizens-to-help-road-accident-victims/1729121/>

<https://www.inc42.com/buzz/ola-uber-join-delhi-govt-to-help-road-accident-victims/>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ola-uber-roped-in-to-help-rush-road-accident-victims-to-nearest-hospitals-6088583/>

<https://www.indiatoday.in/mail-today/story/delhi-cm-launches-farishte-dilli-ke-1607108-2019-10-08>

<https://www.newindianexpress.com/cities/delhi/2019/oct/31/delhi-government-defends-health-scheme-at-hearing-2055016.html>

<https://www.news18.com/news/india/farishte-dilli-ke-how-kejriwal-govt-scheme-is-saving-accident-victims-in-their-golden-hour-of-need-2371701.html>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공공안전을 위해 전동 스쿠터 이용규제안 마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 도시교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전동 스쿠터에 관한 별도의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최근 전동 스쿠터 이용자의 차량추돌 사고와 무분별한 이용으로 공공시설이 훼손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공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동 스쿠터 이용규제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

배경

- 세계적인 공유차량 업체 그랩(Grab)이 2019년 5월 인도네시아에 처음 전동 스쿠터 서비스를 도입한 이래, 전동 스쿠터 이용은 도시지역에서 젊은 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전동 스쿠터의 무분별한 이용이 공공안전을 저해하고 공공시설 훼손을 야기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기 시작
 - 예를 들어 2019년 11월 11일 이른 오전 시간대에 시내 중심부에서 그랩의 전동 스쿠터를 타던 18세 청년 6명이 지나가던 차량과 추돌하여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
 - 또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몇몇 보행육교의 시설물이 전동 스쿠터에 의해 파손된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
- 자카르타 주정부는 전동 스쿠터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운영 규제안을 마련하고자 그랩 인도네시아 지사와 논의를 시작

주요 내용

- 자카르타 주정부는 전동 스쿠터의 이용시간, 이용장소, 이용규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액 등을 포함한 전동 스쿠터 이용규제안 초안을 최근 완성
 - 그랩에서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전동 스쿠터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의 전동 스쿠터에도 동일하게 이용규제를 적용
 - 전동 스쿠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
 - 간선급행버스, 경전철 등 시내 주요 대중교통 운행시간과 동일하게 설정해 야간에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

- 그 밖에 매주 일요일에 ‘차 없는 요일(Car Free Day)’이 시행되는 곳에서도 전동 스쿠터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전동 스쿠터는 자전거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행자도로 또는 차량 통행로 이용이 금지됨
 - 자전거도로가 끊기는 곳에서는 도로 주행 횡단이 금지되며, 보행자처럼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야만 함
 - 심지어 고속도로 위를 주행하는 이용자들도 발견됨에 따라, 고속도로 인근에는 전동 스쿠터 대여 주차장 설치를 금지
 - 또한 GBK 주경기장, 국립기념탑 공원, 공항 등 가급적 외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의 이용을 권장
- 보행육교는 전동 스쿠터에 탑승한 채로 건널 수 없으며, 반드시 전동 스쿠터의 전원을 끈 다음에 끌고 보행해야만 함
- 전동 스쿠터의 운행속도는 최대 시속 15km, 이용 가능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
- 이용규제 위반 시 최대 1개월 징역 또는 25만 루피아(약 20,000원) 벌금을 부과
 - 이미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 안전 저해 규정을 준용
- 이용규제안은 주지사의 서명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랩 인도네시아 지사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이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안전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
 - 이용자 연령, 주행속도, 헬멧 및 운동화 착용, 1인 탑승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 또한, 자카르타 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보행육교 진입 시 자동으로 전동 스쿠터의 전원이 꺼지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11/14/jakarta-bans-e-scooters-from-sidewalks-footbridges-roads-following-fatal-accident.html>

<https://wartakota.tribunnews.com/2019/11/14/dishub-dki-minta-grabwheels-sematkan-teknologi-baru-jika-melintas-jpo-ini-alasannya>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9/11/15/09013361/sejumlah-regulasi-yang-akan-mengikat-pengguna-skuter-listrik?page=all#page2>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9/11/15/19130091/respons-grab-soal-rencana-regulasi-alat-mobilitas-pribadi-di-jakarta>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191113190136-20-448096/buntut-insiden-grabwheels-ruang-gerak-skuter-dibatasi>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69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12월 9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